

도심 한복판 영토 도발에 대한 항의 서한

-수신: 주한 일본대사관

-발신: 민주당 윤석열정권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도심 한복판 영토 도발에 대한 항의 서한

-수신: 주한 일본대사관

-발신: 민주당 윤석열정권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의 영토 도발이 자행됐습니다.

이달 초(10월4~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 영토로 포함한 지도를 비치하고 배포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인 '동해'를 '일본해'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특히 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진 명백한 영토 도발입니다.

일본 자객들에 의해 조선의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살해된 사건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현대판 을미사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일본 측은 즉각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10.23.

민주당 윤석열정권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김병주 추미애 윤호중 김태년 권칠승 박선원 김용만 모경종 이기현
부승찬 정준호 김현정 김병욱 김홍국 김태성 김인제 이재관 김준혁 호사카유지